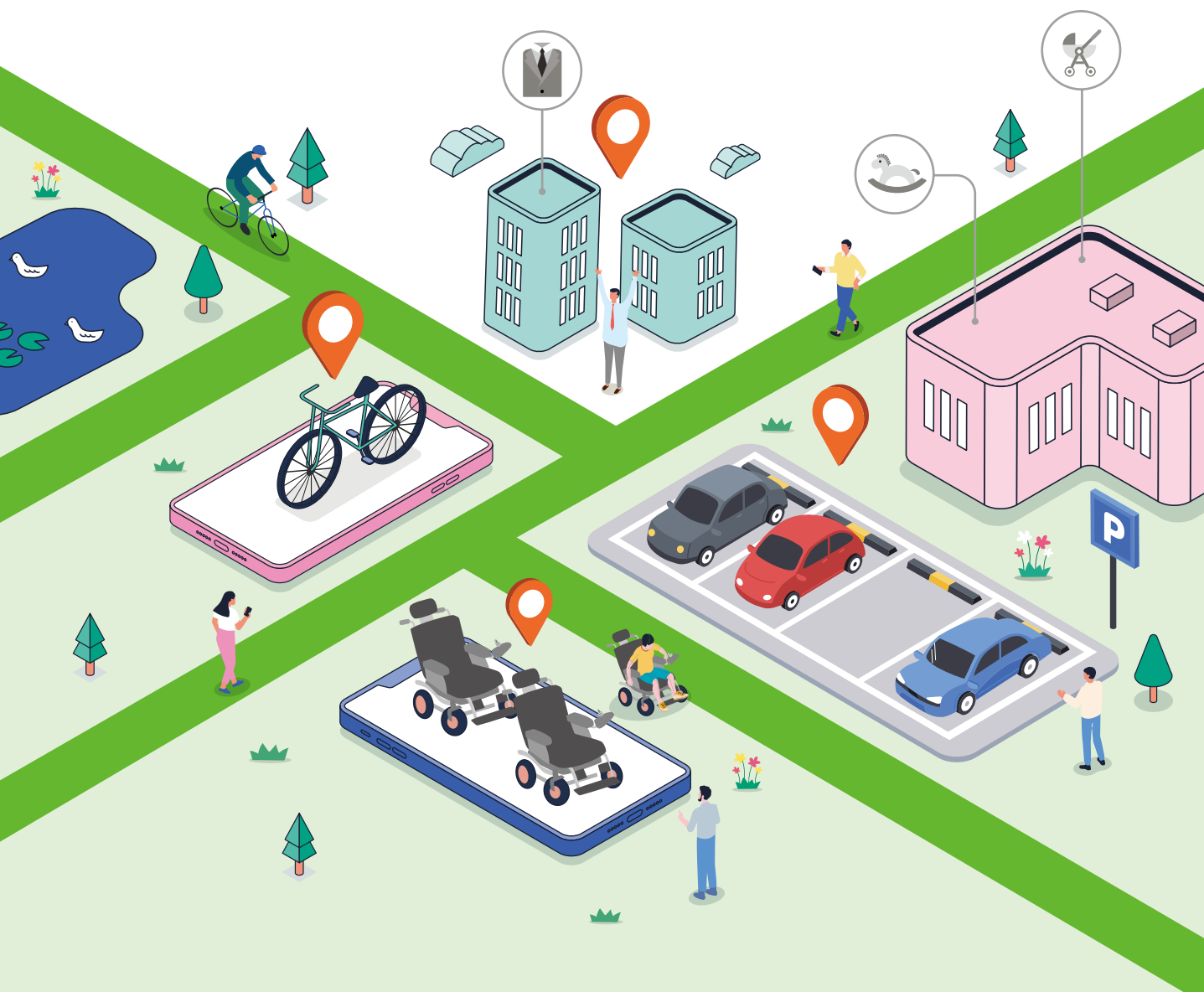


국민을 **더**⁺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가치있게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우수사례집



머리말

행정안전부는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물품 등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정부24’를 통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3월에는 전국 행정·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시설·물품을 한 곳에서 검색 및 예약·결제할 수 있는 통합 관리플랫폼 「공유누리」를 구축하여 웹·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공유누리」에서 문화·숙박시설, 회의실 및 강의실, 강당, 체육시설, 주차장, 생활공구 및 휠체어 등 물품, 연구·실험장비,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설·물품 16만여 건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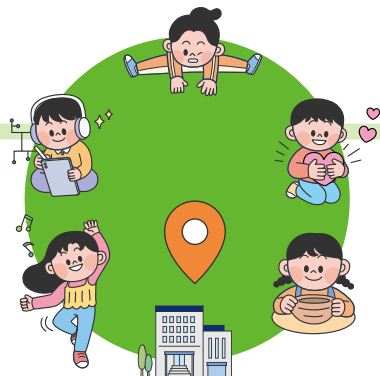
「공유누리」 서비스는 구축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약 30%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며,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캠핑장 등 숙박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이용율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물품 중에서는 생활공구와 휠체어에 대한 검색이 꾸준히 상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와 품질개선을 위해 지역주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서비스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민·관협력을 통해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고령화,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소한 사례들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수록된 우수사례들이 여러 기관에서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를 추진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더 많은 국민이 더 필요한 공공자원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자원을 확대하고 「공유누리」 서비스를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포털에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PART

I

공유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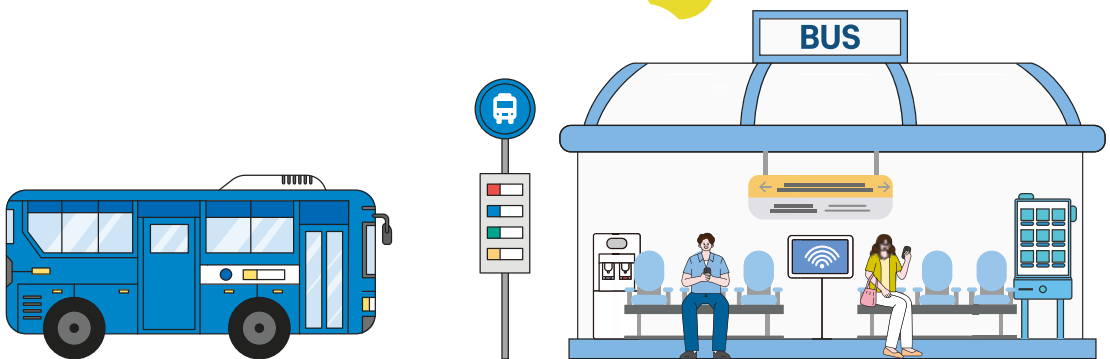
1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주차장 개방·공유로 불편은 줄이고 상생은 키운다	08
2 부산 금정구	유희 공공시설 개방·공유로 환경도, 노인 일자리도 업사이클링!	11
3 부산 수영구	지인 초대나 홈파티도 거뜰히!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찬장 지원	15
4 제주특별자치도	어디든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민과 관광객자에게 전동휠체어 무상대여	18

PART

III

지역현안

1 경남 통영시	도시재생으로 재탄생한 폐조선소, 지역경제 회생의 새 출발점이 되다	50
2 경남 하동군	버스 대기실을 넘어 군민 모두의 쾌적한 공유쉼터로	54
3 충북 옥천군	지자체의 유희공간 개방과 주민참여로 아동 돌봄 공백 해결	58



PART

II

지역 커뮤니티

1 강원도 강릉시	빈 동장실의 두 번째 쓸모, 마을 복지를 위한 공동공간	24
2 경기 시흥시	사람 대신 소통이 사는 반지하 주택, 주민 안전과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	28
3 경북 청송군	폐교에서 생활문화센터로, 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학교로 안착	31
4 광주광역시 남구	동별 특색을 살린 공간 운영으로 마을커뮤니티센터 활성화	35
5 광주광역시 북구	비대면 시대의 스마트한 자원 나눔, 수요자 맞춤형 무인판매 공유플랫폼	39
6 충남 예산군	유희시설인 군청 별관을 주민 주도의 공동체 공간으로	43

PART

IV

청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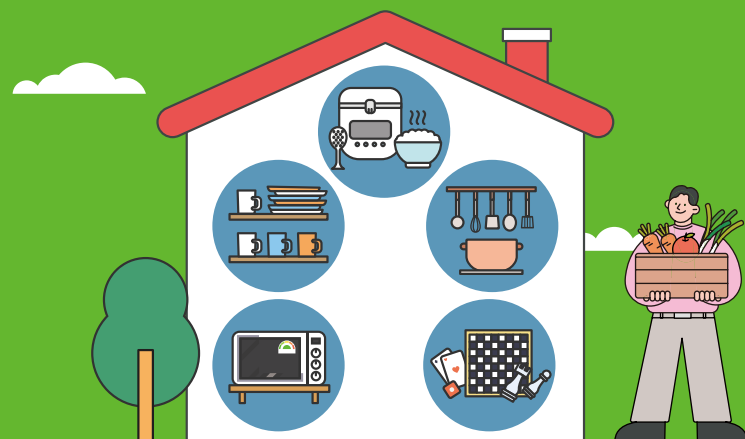
1 강원 동해시	청년 활동공간부터 면접 지원까지, 걱정은 달고 지원은 '열림'	64
2 서울 관악구	청년이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청년 종합활동 거점 플랫폼 운영	68
3 충남 아산시	지역 청년 누구에게나 열린 청년 아지트로 '나와유'	72

국민을 **더**⁺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가치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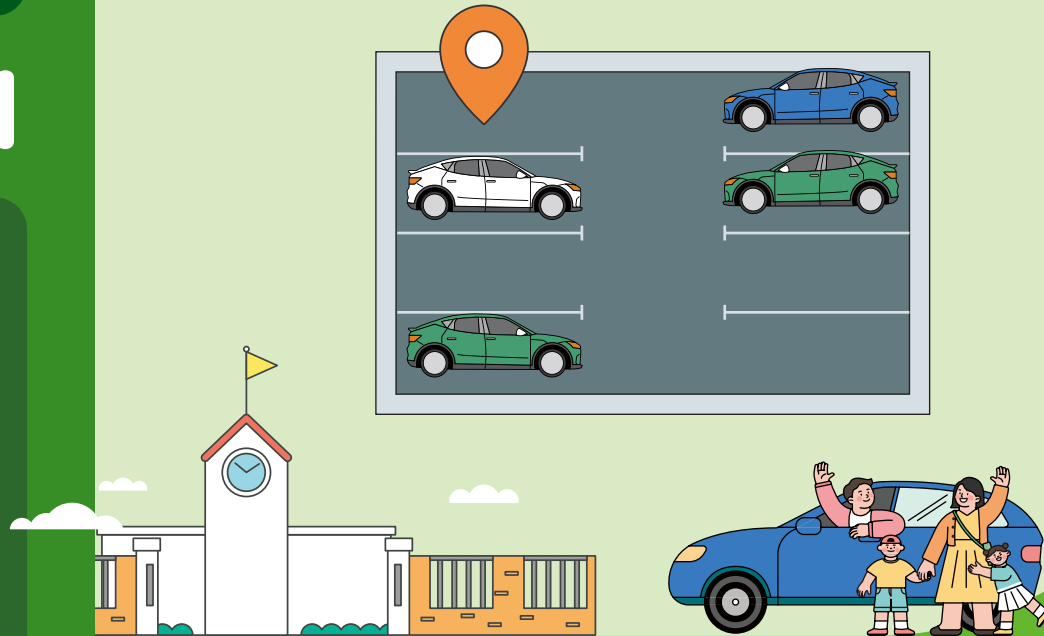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우수사례집

I

공유문화



- ①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주차장 개방·공유로 불편은 줄이고 상생은 키운다
- ② **부산 금정구** 유휴 공공시설 개방·공유로 환경도, 노인 일자리도 업사이클링!
- ③ **부산 수영구** 지인 초대나 홈파티도 거뜰히!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찬장 지원
- ④ **제주특별자치도** 어디든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민과 관광객자에게 전동
휠체어 무상대여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주차장 개방·공유로 불편은 줄이고 상생은 키운다

Check

관내 학교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발굴하여 개방함으로써 주차난 관련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대비 90%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와 더불어 지역과 학교가 교류하고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심각한 주차난 속 현실적인 해결책 모색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수는 2,500만 대에 이른다. 인구와 비교했을 때 대략 둘 중 한 명은 차를 보유한 셈이다. 이처럼 점점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구의 경우, 다른 구에 비해 면적이 좁은 데다 언덕과 이면도로가 많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 주차장으로 조성할 부지 확보조차 녹록지 않아 좀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관내 학교주차장을 주민을 위한 공유주차장으로

그동안 서구는 지역의 종교시설이나 아파트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해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주차장' 정책을 관내 주차난 해소의 대안으로 삼아왔다. 그러던 중 2023년 3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관내 학교가 보유한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먼저, 6월 12일 광주시교육청과 '상생·협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구는 주차난이 심한 단독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 내 학교를 방문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한 달여 만인 7월, 관내 4개 초등학교와 공유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는 광주광역시를 통틀어 첫 성과로, 광주광천초 21면, 금당초 21면, 금호초 34면, 운천초 35면 등 총 111면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유 주차공간으로 개방하면서 주차 문제 해소의 물꼬를 텄다.

학교 공유주차장은 7월 개방 협약을 맺은 후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구의 지원 아래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주차장을 정비했다. 그런 다음 9월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모집을 시행, 등록된 차량에 한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개방 시간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이며, 토·일·공휴일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주차장 신설 대비 90%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

한편, 학교주차장 공유는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1면당 1.13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10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주차장 부지확보 또한 쉽지 않고, 설령, 부지가 확보되더라도 2년 이상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로운 주차장 신설이 아닌, 공유의 방식으로 학교 주차장 111면을 개방하면서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1억 2,000만 원을 제외하고도 약 9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교류와 상생의 공유문화 확산 계기

4개 학교의 주차장 개방을 통해 주차난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갈등을 일정 부분 해결한 서구는 2023년 12월 3개 학교와 추가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구는 이 흐름을 이어 더 많은 관내 학교주차장의 개방·공유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생소한 개념인 ‘공유’를 일상에서 좀 더 쉽게 접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유’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학교복합시설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와 지역주민이 교류하고 상생하는 기회의 장을 여는 것으로 공유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Case

02



부산 금정구

유휴 공공시설 개방·공유로
환경도, 노인 일자리도 업사이클링!

Check

정부와 지자체의 핵심 정책이자 당면과제인 지속가능성장(ESG)과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업으로 유휴 공공시설을 업사이클링 거점공간 ‘우리동네 ESG센터’로 개소, 자원순환 및 가치 있는 신규 노인 일자리 창출

초고령사회 가치 있는 노인 일자리에 주목

부산시는 2021년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으면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는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7월 기준 부산시의 고령인구는 전체의 22.1%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부산시 금정구의 고령화는 더욱 도드라져, 2023년 9월 말 기준 고령인구의 비중은 24.6%에 이르렀다. 금정구는 단순히 고령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최근 자립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신노년 세대(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과 더불어 노년에도 자기계발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등 일자리 욕구가 달라진 점에 주목했다. 노인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지 않고, 노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일자리를 고민한 것이다.

사회적 가치와 노인 일자리 연계

소득 보장과 동시에 노년의 자아실현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로 방향성을 정한 금정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핵심 정책이자 당면과제인 ESG에 노인 일자리 문제를 접목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 서비스 발굴에 나섰다. 탄소중립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노인 일자리를 연계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해 친환경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은 것이다.

이를 위해 금정구는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2022년 2월에는 금정구와 관내 6개 복지시설 및 기관과 '민·관 공동 ESG 복지경영 비전 선포식'을 갖고, 지속 가능한 복지경영 의지를 다졌다. 이후 4월부터 12월까지는 줌강데이 운영과 돌봄 식사를 위한 다회용 도시락

가방 지원, 플라스틱 병뚜껑 시범 수거,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과 재활용연구소 견학, ESG 실천 플라스틱 병뚜껑 재활용 시범사업 등 복지정책에 ESG를 접목한 친환경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했다. 10월에는 노인복지 관련한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조별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찾아가는 주민참여 리빙랩'을 운영했다.

업사이클링 거점기관, 우리동네 ESG센터 개소

'우리동네 ESG센터'는 민·관이 협업하고 소통한 결과물로서, 관내 노후화된 영구임대 아파트 상가의 유허공간을 사업의 거점이자 지역주민들의 정보공유 및 소통장소로 개방·공유하면서 2022년 12월 28일 개소했다.

'ESG'는 원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기업의 경영철학으로, 우리동네 ESG(Eco Senior Group) 센터는 ESG 본연의 의미에 한층 진화된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덧입혔다. 이로써 공공자원 개방을 통해 노인문제와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민·관 협업 업사이클링 거점공간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동네 ESG센터에서는 지역주민(노인층)이 직접 폐플라스틱을 수거한 다음 재활용(업사이클링(Upcycling))의 한글 표현으로, 버려진 물건을 원재료 삼아 아이디어와 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해 만든 제품을 지역의 취약계층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원순환사업이 이루어진다. 즉,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폐플라스틱, 장난감, 병뚜껑 등을 수거해 세척 후 종류나 색상별로 분류하면, 사회적기업인 코끼리공장의 파쇄공장에서 원료화 작업을 거쳐 재활용 제품으로 제작하고, 완제품은 다시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환원되는 구조다. 센터는 지역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으로도 쓰이는 만큼 폐플라스틱 재활용 작업 외에도 어린이도서관, 놀이 및 교육문화공간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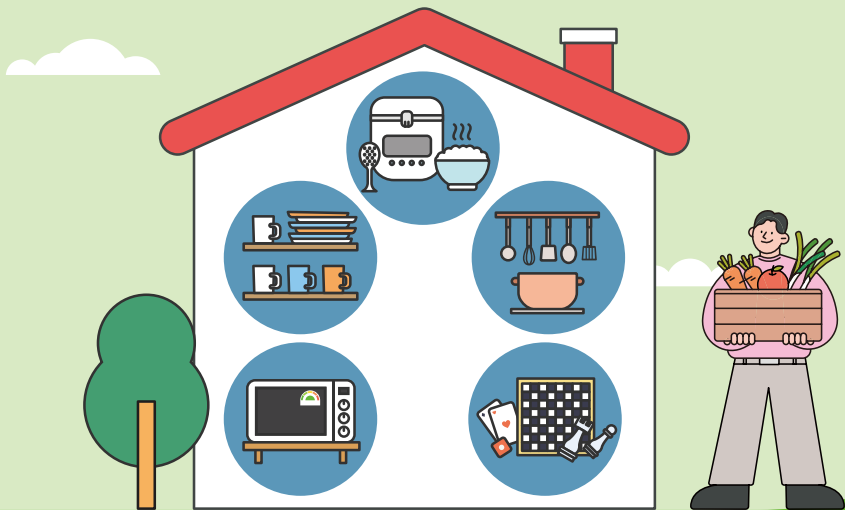


공유서비스 확대 및 전국적인 확산 지원

우리동네 ESG센터는 지역의 노후화된 유허공간을 ESG 실천을 비롯한 주민들의 정보공유 및 소통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자원순환 거점으로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안전손잡이 등을 지역주민에게 꾸준히 환원 및 공유해온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무엇보다 2023년에만 240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노인 빈곤 완화는 물론, 노인의 우울감 감소, 사회적 관계 개선, 건강의료비 절감 등 노후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금정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우수한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 서비스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공공자원 개방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꾸준히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Case
03



부산 수영구

지인 초대나 홈파티도 거뜰히!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찬장 지원

Check

갈수록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고립·고독 방지를 위해 지인 초대나 홈파티 시 필요한 에어프라이어, 와플기 같은 주방용품과 테이블 등 파티용품을 대여하는 ‘공유찬장’ 사업 시행



갈수록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비율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2022년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은 34.5%다. 같은 해 부산시는 이보다 웃도는 35%로, 수영구의 1인 가구는 이보다 높은 40.2% (3만 2,325가구)로 나타났다. 수영구는 이처럼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그 유형 또한 다양해지는 현실을 직시해 관내 1인 가구에 맞춰진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2022년 부산시의 '1인 가구 커뮤니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2023년 3월에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한층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덕분이다.



주방용품과 파티용품 무상대여 서비스

수영구의 민관협의체인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수영구플러스 행복센터에서는 '공유찬장'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유찬장' 사업은 일반적인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이 아닌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영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에서도 청년과 중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주방용품과 파티용품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이다.

비교적 간소한 살림으로 꾸려지는 1인 가구는 평상시 생활에는 지장이 없지만, 간혹 지인을 초대하거나 생일 등 홈파티를 하려고 해도 당장 요리하고 꾸밀 집기가 마땅치 않아 망설이게 된다. 그렇다고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할 용품들을 구매하는 것도 적잖은 부담일 터. 수영구플러스행복센터는 이 같은 1인 가구의 속사정을 헤아려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밥솥, 튀김기, 와플기, 미니블렌더 등의 주방 전자기기는 물론 밥그릇, 국그릇, 접시 등의 그릇 세트와 함께 접이식 테이블과 테이블보, 앵두전구,

보드게임 등 파티용품까지 일괄 대여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전화나 방문, QR코드나 구글폼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여 날짜에 맞춰 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대여 기간도 최대 7일로 넉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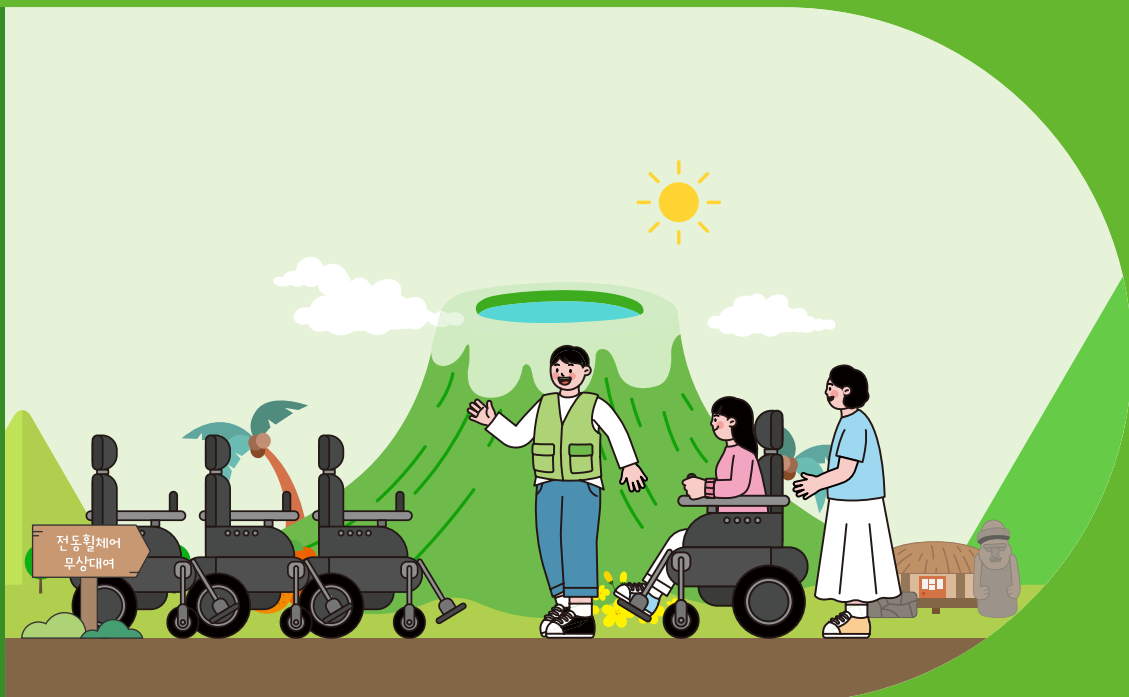


신규 공공자원 발굴로 더욱 활발한 공유문화 형성

관내 1인 가구의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 시행과 더불어 선착순으로 생일 파티를 앞두고 공유찬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생일 케이크를, 이사 후 집들이를 위해 공유찬장을 신청한 주민에게는 이사 기념떡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쳤다. 덕분에 시행 6개월여 만인 2023년 9월까지 20건의 이용 건수를 기록했다. 또한, 공유찬장과 별개로 센터 내에 공유주방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1인 가구 중 요리할 공간이 필요하거나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친구들을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먹고싶을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영구는 공공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1인 가구에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고독·고립 방지와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폭넓고 세심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시설, 물품, 교육강좌 등 공유할 수 있는 신규 공공자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비롯해 더욱 많은 이들이 지역의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디든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전동휠체어 무상대여

Check

관광사업이 주요동력인 제주도의 지역특성에 따라 관광객자의 이동성과 여가누림을 보장하기 위해 도민을 포함한 관광객자를 대상으로 전동휠체어를 무상대여



제주 방문자의 15.9%는 활동이 불편한 관광객자

제주관광공사에 의하면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제주를 찾은 방문객은 933만여 명에 이른다. 이중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가족 등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관광객자(관광시설 이용 및 관련 정보수집 과정에서의 제약 조건으로 인해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는 약 148만 명으로 전체의 15.9%를 차지한다.

반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동보장구는 배터리 용량 문제로 항공기 수하물 위탁이 불가능하다. 그런 만큼 이들을 위한 관광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렌터카 총량제가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의 특성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차량을 렌터카로 추가할 시 일반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제주도는 공유경제서비스를 통해 관광객자를 위한 관광여건 개선에 나섰다.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접이식 경량형 전동휠체어를 무상대여하는 것으로 도민을 포함한 관광객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익 증대를 도모한 것이다.



방문객과 도민 모두에게 서비스 적용

전동휠체어를 무상대여하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와 '관광객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5개년(2022-2026) 기본 계획' 등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었다. 주목할 점은 서비스 수혜 대상이 폭넓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전동휠체어 무상대여는 방문객과 도민 모두에게 적용되며, 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행 중 사고로 보행이 불편해진 자 등 일시적으로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제공된다. 또한, 최근 여행 트렌드인 '한 달 살기'를 위해 제주를 찾은 중장기 체류 관광객자들도 대상에 포함해 서비스 체감도를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갈수록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 2022년 대여 건수 55건, 대여일 259일에서 2023년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대여 건수 64건, 대여일 266일을 기록했다.

관광약자와 그 동반자의 만족도까지 증진

관광약자 전동휠체어 무상대여는 관광산업이 주요 동력인 제주도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로, 관광지나 관광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하는 이른바 '무장애관광'이 증가하는 최근 흐름에도 부합한다. 즉 올레길을 비롯해 해안도로, 숲길 등 유독 산책코스가 많은 제주도의 관광 특성을 고려해 수동휠체어가 아닌 전동휠체어와 보장구를 무상대여함으로써 도민을 포함한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권 증진은 물론, 관광약자와 동반한 여행자의 만족도까지 높이고 있다.

📷 : 접이식 전동휠체어



📷 : 탈착식 전동보장구



더 다양한 공공자원 대여 서비스 발굴 계획

현재 무상대여를 위해 보유한 보호장구는 전동휠체어 10대, 수동휠체어에 탈부착이 가능한 전동 바이크 2대다. 제주도는 이들 보호장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매월 보장구 점검과 분기별 보장구수리지원센터 안전 점검, 대여 장비 고장 및 응급상황 시 찾아가는 수리 서비스 제공 등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자체 만족도 조사를 통한 체감도를 확인함으로써 이용자 관점에서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되도록 개선해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공공자원 개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제주도는 관광약자를 위한 더 다양한 서비스 발굴 및 제공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신규로 발굴한 공공자원 대여 서비스를 공유누리에 연계, 등록함으로써 관련 서비스 노출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국민을 **더**⁺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가치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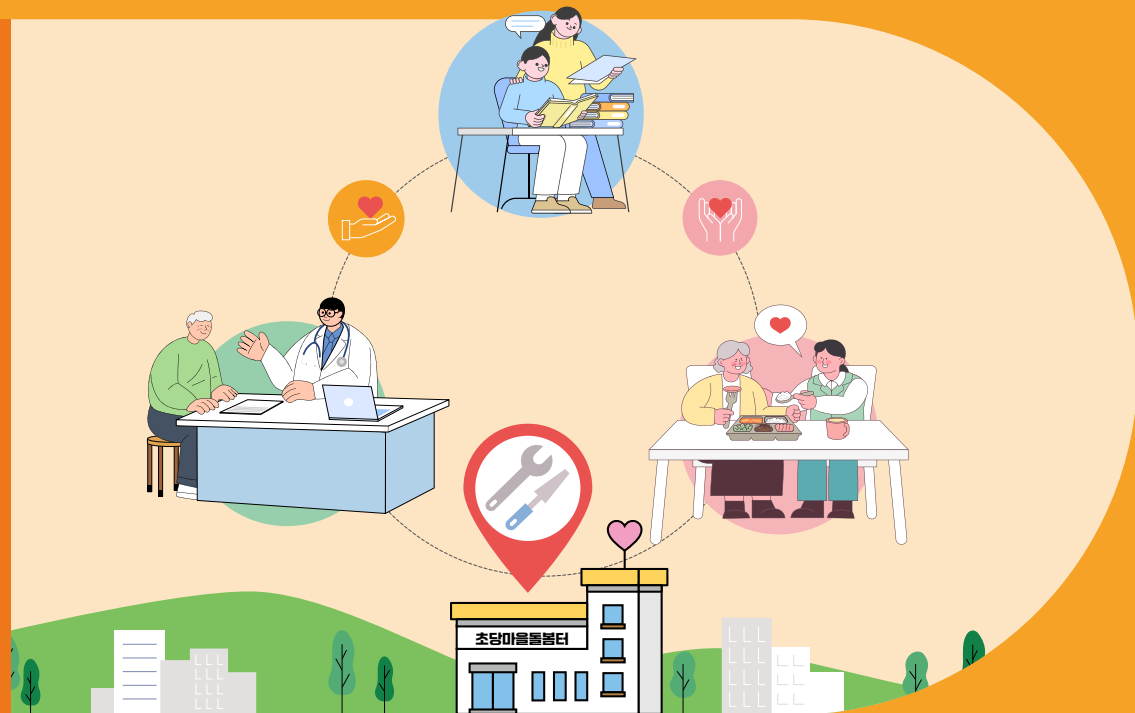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우수사례집

II

지역 커뮤니티



- ① 강원도 강릉시 빈 동장실의 두 번째 쓸모, 마을 복지를 위한 공동공간
- ② 경기 시흥시 사람 대신 소통이 사는 반지하 주택, 주민 안전과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
- ③ 경북 청송군 폐교에서 생활문화센터로, 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학교로 안착
- ④ 광주광역시 남구 동별 특색을 살린 공간 운영으로 마을커뮤니티센터 활성화
- ⑤ 광주광역시 북구 비대면 시대의 스마트한 자원 나눔, 수요자맞춤형 무인판매 공유플랫폼
- ⑥ 충남 예산군 유희시설인 군청 별관을 주민 주도의 공동체 공간으로



강원도 강릉시

빈 동장실의 두 번째 쓸모,
마을 복지를 위한 공동공간

Check

동장실을 민원실로 이전하면서 생겨난 유휴공간을 마을주민에게 개방, 지역에 특화된 마을 공동자원을 조성해 주민과 함께 나누는 민·관 협력 자원나눔 공간으로 활용



동장실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 발생

2022년 6월 13일을 기점으로 강릉시의 21개 읍·면 주민센터는 대대적인 내부 공간 이동에 들어갔다. 당시 김홍규 강릉시장의 당선과 더불어 관내 읍·면 동장실을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는 사무공간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주문한 까닭이다. 여기에는 민원실과 동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어 있던 동장실에서 벗어나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을 만나 직접 소통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마을에 특화된 복지자원 나눔 거점 공간

두부로 잘 알려진 초당두부마을 또한 기존의 동장실을 민원실 사무공간으로 옮겼다. 이에 따른 유휴공간을 마을주민에게 개방해 마을 공동공간인 '초당마을돌봄터'로 재단장한 다음 2022년 10월 13일 개소했다. 이후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 복지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초당두부'라는 마을에 특화된 복지자원을 활용해 민·관이 협력해 마을돌봄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주민과 동네가게가 함께하는 복지자원 나눔

마을 복지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공유플랫폼 조성이 대표적으로, 마을주민과 동네가게가 함께 복지자원 나눔을 위한 마을공간 '나눔마켓'을 열었다. 집수리,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봉사활동, 아동 공부방 등 재능 나눔도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 주민 공용 공구대여소 운영을 통해 소규모 수리장비 자원 나눔과 함께 지역 봉사단체

와 연계해 독거어르신 및 한부모가정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보유 중인 인적·물적 자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초당알림게시판을 통해 공유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초당마을돌봄터는 공유자원 개방 활성화를 위해 '마을전문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마을의 현안과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지역주민·마을활동가와의 워크숍과 더불어 주민주도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또, 지속적인 마을 복지자원 방안 마련을 위해 수시로 마인드맵 회의를 열고 있다.



음식나눔에 건강지킴이 역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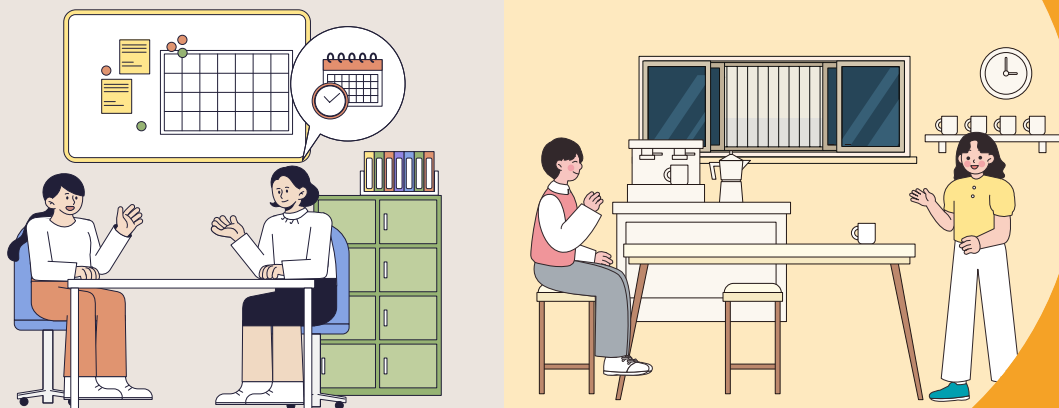
초당마을돌봄터는 정(情)으로 이어지는 음식나눔을 위해 '나눔냉장고'도 운영 중이다. 초당두부마을에 소재한 음식점과 카페(디저트류) 중심으로 반찬을 비롯해 영양 가득한 건강식을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농산물이나 식자재를 나눔냉장고에 기부해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음식나눔 거점 역할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자원나눔을 통해 독거어르신 및 건강에 취약한 1인 청장년 가구를 위한 건강상담을 비롯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비타민과 건강보조용품 같은 건강 식품 지원 등 건강을 위한 공유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강릉형 복지자원 돌봄체계 모델 개발

강릉시는 동장실을 주민 소통공간으로 개방해 지역주민과 공유한 첫 사례인 초당마을 돌봄터를 시작으로 이후 마을돌봄터 설치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로써 상시적인 강릉형 복지자원 돌봄체계 모델을 개발해 마을 단위의 물품 및 인적자원에 대한 공유플랫폼을 조성, 지역주민들의 소통 창구 역할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없는 강릉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경기 시흥시

사람 대신 소통이 사는 반지하 주택, 주민 안전과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

Check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해 주거안전이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비주거로 전환하고, 빈 주택을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한울터'로 조성해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반지하 주택의 새로운 활용 모델 제시

기후변화로 여름철 국지성 호우와 폭우 등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면서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비율이 높아 자연재해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2년 8월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서울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시흥시는 국토교통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업으로 반지하 주택을 리모델링 해 주민커뮤니티 시설인 '한울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거주공간이 아닌 주민 공유공간으로 리모델링

한울터는 주거 안전이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비주거지로 전환하고, 그곳을 주민 모임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주민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로 조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23년 1월 시흥시와 LH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되었다. LH는 시흥시 대야동의 4층짜리 매입임대주택의 반지하 주택 2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시 공실이었던 한 곳과 달리 거주 중이던 반지하 주택의 세대는 지상층으로 이주 지원했다. 이후 LH는 5월부터 역류 방지시설, 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자동배수펌프, 침수감지 경보장치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시흥시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뀐 주택 2곳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가구를 설치하는 등 시설 운영 준비를 마쳤다.



공동작업장과 주민 모임 공간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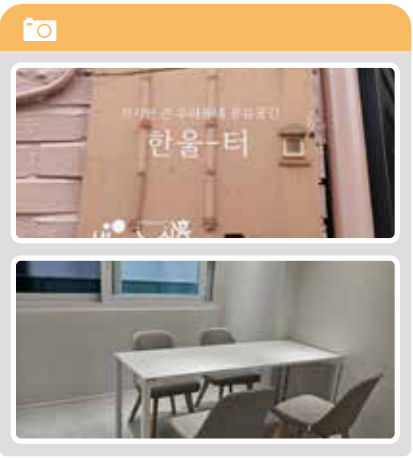
'작지만 큰 우리동네 공유공간, 한울터'라는 이름으로 2023년 7월 3일 개소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경기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가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34.65㎡

(2개소) 규모의 한울터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일자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자활공동작업장과 구도심에 부족한 지역주민 모임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활공동작업장에는 작업장 외에 카페, 휴게실, 창고, 화장실 등이, 주민 모임 공간에는 회의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목적실을 중심으로 대여물품 보관실, 카페, 휴게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이중 대여물품 보관실에는 집수리 공구, 라돈측정기, 소독기, 캠핑용품 등 주민에게 유용한 물품들을 보유하고, 주민 대상으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한울터에서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의 줄임말’ 장터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취약계층 주민 지원에 활용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 명절에는 한울터내 공유주방에서 명절음식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공유경제 인식 확산 및 구도심에 활력 증진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지자체-LH의 협업 모델로도 주목받은 한울터는 운영 이후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공동작업장 운영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집수리 공구 등 지역주민에게 공유물품을 대여함으로써 공유 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침체했던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처럼 고무적인 성과를 확인한 시흥시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한울터를 시작으로 신규 공유공간의 지속적 발굴은 물론 공유자원 플랫폼 등록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꾸준히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Case

07



경북 청송군

폐교에서 생활문화센터로,
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학교로 안착

Check

폐교를 리모델링 해 지역의 문화자원인 남관 화백의 미술관이자 생활문화센터로 조성, 오픈키친·미디어아트홀·문화동아리 활동 공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



폐교를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리모델링

경북 청송군은 주왕산국립공원과 청송사과축제, 산소카페 청송정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 청송군은 이들 관광객에게 청송의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과 더불어 지역주민들 누구나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소외지역에 문화예술 거점 공간을 마련했다. 2013년에 폐교한 대전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해 청송 남관생활문화센터로 새롭게 선보인 것이다.

남관생활문화센터는 청송 출신인 남관(1911-1990) 화백의 이름을 딴 공간으로, 남관 화백은 한국 미술계 거장이자 한국인 최초로 망통 국제비엔날레(위원장 피카소)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알린 청송의 문화자원이다.



지역민을 위한 '베이킹&쿡 클래스' 운영

남관생활문화센터는 문화소외지역에 조성한 만큼 미술 전시관 외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거점 공간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2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 국비 공모에 선정되면서 조성된 오픈키친은 주민 대상으로 요리 강좌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2023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베이킹&쿡 클래스'를 40회에 걸쳐 진행했다. 제빵과 한식, 밑반찬을 배우고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소양을 증진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 대상의 수요도 조사를 실시, 이를 반영한 한식 레시피 강좌를 시범운영 했다. 올해부터는 기본적인 취미 요리 강좌에서부터 경북 북부권 종가 음식의 레시피를 배워보고 소개하는 강좌 등 다양한 주제에 따른 요리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아트홀 개관으로 미술체험 기회 확대

2023년 7월에는 '2022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남관생활문화센터 2층 전시공간을 리모델링 해 '남관 미디어아트홀'로 꾸몄다. 이를 통해 남관 화백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남관 화백 홀로그램을 비롯해 미디어아트, 인터랙티브(상호작용) 실감 콘텐츠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남관 화백의 실제 작품 30여 점을 특별전시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활동공간

남관생활문화센터는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동아리 활동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다목적실과 음악연습실, 동아리체험실 등을 무료로 상시 개방함으로써 주민 대상의 문화강좌 운영과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들의 취미활동과 생활공간의 거점 장소로도 쓰이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민 대상 한방 무료 진료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다. 동국대 한방진료 봉사단 60여 명의 도움으로 주민들이 기본적인 건강 체크는 물론 침·뜸·부항 등 한방치료와 함께 개별 면담을 통해 지병의 치료 방법 및 한방의약품을 제공받음으로써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한 발짝 다가갔다.

남관생활문화센터는 조성 후 단순 유지 및 운영에 그치지 않고, 매해 새로운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의 간격을 좁혀가고 있다. 이를 말해주듯 2024년에도 문화가 있는 날, 오픈키친, 미디어아트 공모 선정작 기획전시 운영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충과

미디어콘텐츠를 더욱 보완해 지역주민 및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속 교류·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송군은 남관생활문화센터 개방·공유 외에도 청송군생활체육공원, 청송군민운동장 등 군이 보유한 공공자원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공공 개방자원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신규 공공자원 발굴 및 확대와 함께 공유누리에 관한 관심도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적극적인 홍보 정책을 펼치고 있다.

Case

08



광주광역시 남구

동별 특색을 살린 공간 운영으로 마을커뮤니티센터 활성화

Check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관내 12곳에 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 무인차집과 만화카페, 콩나물 재배·나눔사업 등 동네별 특성에 맞는 마을 사업 연계 및 공간 운영으로 마을커뮤니티센터 활용도 극대화



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

마을커뮤니티센터는 마을주민들의 교류 및 접촉을 증진하고 공통의 마을 문제를 논의하며, 문화생활 영위와 마을 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다만, 지원 부족과 마을주민들의 의견 반영 미비 및 참여 저하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이러한 마을 커뮤니티센터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시하고, 이곳이 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유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커뮤니티센터 활성화'에 나섰다.



각 동네의 특성에 주목한 공유공간 활용

남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관내 동네마다 마을커뮤니티센터를 조성했다. 그 결과, 남구에 소재한 마을커뮤니티센터는 모두 12곳. 이 중 2017년에 가장 먼저 조성한 송화마을 커뮤니티센터(효덕동)를 비롯해 9곳은 구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며, 마을 비전추진센터(봉선1동) 등 3곳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남구 관할의 마을커뮤니티센터의 차별점은 동네별 특성에 주목했다는 데 있다. 각 동네의 특색과 연계한 마을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마을 커뮤니티센터의 활용도를 극대화한 것이다. 가령, 효덕동의 송화마을 커뮤니티센터는 무인차집과 쉼터, 백운1동의 까치마을 커뮤니티센터는 만화카페, 백운2동의 난지실콩나물 카페는 콩나물 재배·나눔사업, 월산5동의 달빛어린이마을이음터는 생활지원사 휴게 공간, 대촌동 1549공감센터는 요가·장구교실, 봉선1동의 마을비전추진센터는 무더위 쉼터를 통해 공유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마을주민 중심의 개방·공유공간으로 변화

관내 4개 마을커뮤니티센터를 대상으로 커뮤니티공간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모 사업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주월2동의 무등빛 마을커뮤니티센터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월산4동의 수박등 마을커뮤니티센터는 용서·화해·사랑 소통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 봉선1동의 마을비전추진센터는 1인 가구 동아리 만들기와 복지한마당, 독거어르신 상담활동을, 백운1동의 꿈·키움·문화 놀이커뮤니티는 교육공동체 미래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기존의 마을커뮤니티센터의 공간 활용이 소규모 회의나 단기 행사에 치중되었던 것과 달리 다양한 노력을 통해 주민 수요에 맞춘 주민 중심의 개방 공유공간으로 변화를 꾀한 것이다.



마을커뮤니티센터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지원

2022년 12월 28일에는 마을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각각의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 계획을 마을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고, 분기별 운영실적과 계획을 보고하는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했다. 이를 토대로 마을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지원 또한 꾸준히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동네 행정복지센터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민 활동 거점 공간으로서 마을커뮤니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2023년 5월 리모델링을 완료한 수박등 마을커뮤니티센터 사례처럼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해 주민 활동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 흐름을 이어 남구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한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유누리 포털 사이트에 관련 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관내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공공자원 발굴과 서비스 제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 : 뽕뽕다리 커뮤니티센터



📷 : 송화마을 커뮤니티센터



📷 : 꿈키움 문화놀이커뮤니티



📷 : 부영이 안심문화마을



Case

09



II 지역 커뮤니티

광주광역시 북구

비대면 시대의 스마트한 자원 나눔,
수요자 맞춤형 무인판매 공유플랫폼

Check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판매 선호라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북구 대표 물품 공유서비스인 '교복나눔' 사업의 공간·운영 개선을 통해 스마트 무인판매 공유플랫폼으로 기능 확장

대표 공유사업인 '교복나눔'의 개선점 대두

'교복나눔'은 2014년부터 이어져 온 광주광역시 북구의 물품 공유서비스다. 이는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빛고을 공유 북구 사업의 일환으로, 사설 교복나눔장터를 통해 새 학기를 준비하는 지역 청소년에게 중고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시작되었다.

그런 만큼 교복나눔 문화는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과제가 대두되었다. 판매 공간 시설의 노후화와 비효율적인 공간 구조를 비롯해 매장 내 상주인력 부재로 인한 관리인력의 한계, 중고 교복 구입 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학생 수요자에 대한 배려, 수기 관리로 사이즈나 재고 수량 문의 등에 대한 소비자 응대 고충, 교복과 체육복 등 한정된 취급 품목으로 물품공유 활성화의 한계 등이 그것이었다. 따라서 북구 대표 공유사업인 교복나눔의 활성화 및 물품 공유사업의 기능 확장을 위해 기존 공간 활용과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가 절실했다.

비효율적 공간구조 개선 및 시설과 외관 리모델링

교복나눔 사업의 개선 프로젝트는 크게 3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1단계에서는 공유플랫폼 공간 리모델링에 집중했다. 교복을 구분해 진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협소했던 공간을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하고, 지붕 방수 공사 및 외관 리모델링으로 기능과 더불어 건물 경관을 향상했다. 이렇듯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공유매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자원순환가게로 기능 확장

2023년 7월부터 진행된 2단계에서는 자원순환가게로의 기능을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복나눔 매장 내에 샵인샵 형태의 자원순환가게를 마련해 어린이용품, 의류, 가방, 생활용품 등 주민들의 자발적 기증을 통해 공유물품을 수집했다. 친환경비누체험 등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했으며, 자원순환가게와 연계한 북구 공유플리마켓도 개최했다. 교복 구입의 주 고객층이 30~40대 학부모인 점을 고려해 매장 내에 별도의 자원순환가게 코너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왔다.

스마트 무인판매 공유플랫폼 구축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3단계에서는 비대면 무인판매시스템을 구축했다. 판매 물품에 개별태그를 부착하고, 판매실적 및 입고·재고실적에 대한 전산 관리를 적용했다. 공유물품 상시 개방 판매,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인력 부재 시간대 무인 운영을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이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판매를 선호하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스마트 무인판매 공유플랫폼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자원 재순환을 위한 공유플랫폼 안정화에 주력

덕분에 공유플랫폼을 통한 수익금은 눈에 띄게 증가해 2020년 117만 4,000원에서 2023년 426만 2,000원으로 상승했다. 이 수익금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되며 지역에 선순환 구조를 뿌리내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북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물품을 기증한 주민 대상으로 주민참여 포인트를 지급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물품 기증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 재순환을 위한 공유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한 오프라인 공유플리마켓의 병행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Case

10



충남 예산군

유희시설인 군청 별관을
주민 주도의 공동체 공간으로

Check

지자체 소유의 유희시설인 군청 별관을 주민공동체 공간인 '예산 해봄센터'로 조성, 주민참여 디자인 설계로 완성한 공유오피스와 미디어실, 창업지원실의 무료대관 등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성화



새로운 활력을 위해 예산해봄센터 조성

통계청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8월 기준 33.8%로, 10년 전보다 10% 증가했다. 또한 예산군의 출생인구는 231명인데 비해 사망자는 7.7배인 1,777명에 달한다(2022년 기준). 예산군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인구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등으로 갈수록 침체되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시도되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혁신적인 주민활동팀을 발굴·모색해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 일환으로 조성된 '예산해봄센터'는 주민 활동 플랫폼으로 지난 2021년 4월에 준공되었다.



공간디자인 설계에 주민 의견 반영

예산해봄센터는 2018년 예산군청 건물을 신축하면서 유희시설이 된 군청 별관건물을 리모델링 해 마련했다. 주민 공동체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 누구나 자부심을 갖고 이용하는 랜드마크 공공건축물을 표방한 만큼 공간 디자인 단계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디자인 살레(건축사, 전문가, 공간을 이용할 주민이 함께 논의한 결과를 실제 내부공간계획 설계에 반영하는 것)를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실제 공간디자인 설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완성

이처럼 주민참여 디자인 설계로 완성된 예산해봄센터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통, 문화 활동, 교육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세어오피스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사무공간으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을 갖추었다. '해봄 스튜디오'라는 이름의 문화미디어실은 전문가용 카메라를 비롯해 조명 장치, 촬영된 이미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포토 프린터 등을 완비해 주민 누구나 셀프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또, 창업지원실은 음악, 레진아트, 어반드로잉, 원예 등 다양한 주민 동아리 모임 활동 및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실습공간으로 활용된다.



3년 만에 주민 이용률 4배 증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성한 공간인 만큼 예산해봄센터의 주민 이용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요 공간의 대여 횟수는 2021년(5월 이후) 318건에서 2023년(10월 말) 1,299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민 방문객 수도 눈에 띄게 늘어, 2021년(5월 이후) 5,098명에서 2023년(10월 말)에는 2만 1,073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만큼 주민들의 일, 소통, 문화, 교육 중심 공간으로서 주민활동팀의 자생능력을 함양하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순기능이 부각하면서 타 시군의 예산해봄센터 견학 방문이 쇄도해, 2023년 10월까지 22개 단체 280명이 다녀갔다.



지속적인 편의 도모를 통한 접근성 강화

예산군은 리모델링 후에도 이용객 편의와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2년 인근 버스 정류장과 센터를 연결하는 계단을 설치한 데 이어, 2023년 10월에는 센터를 찾는 이들의 증가세에 대응해 2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방문객 증가 및 공용공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급속 전기충전소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군은 꾸준히 늘고 있는 이용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교육 공간 추진과 더불어 예산1100년 기념관 대관 등 더 많은 지역의 자원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 셰어오피스(열린 공간)



☎ : 문화미디어실(해볼 스튜디오)



☎ : 창업지원실 (실습 공간)



국민을 **더**⁺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가치있게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우수사례집



지역현안



- ① **경남 통영시** 도시재생으로 재탄생한 폐조선소, 지역경제 회생의 새 출발점이 되다
- ② **경남 하동군** 버스 대기실을 넘어 군민 모두의 쾌적한 공유쉼터로
- ③ **충북 옥천군** 지자체의 유휴공간 개방과 주민참여로 아동 돌봄 공백 해결



경남 통영시

도시재생으로 재탄생한 폐조선소, 지역경제 회생의 새 출발점이 되다

Check

조선업 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폐조선소를 취·창업 지원 및 교육·문화예술 향유 공간인 '통영리스타트플랫폼'으로 조성해 지역경제 회복 도모



조선업 위기로 침체한 지역경제 회생 니즈 대두

2000년대 고도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1위에 우뚝 섰던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고유가와 수주감소로 2010년 중반부터 급격한 위기 국면을 맞았다. 조선소가 지역경제의 상당 부분을 책임졌던 지역이 입은 타격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통영시도 그중 하나로, 통영의 향토기업인 신아sb조선소는 2000년대 중반 세계적인 조선소로 성장하며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나, 조선업의 위기와 더불어 2015년 파산에 이르렀다. 이후 급격하게 침체한 통영시의 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해 결과제로 떠올랐다.



폐조선소를 리모델링 해 통영리스타트플랫폼으로

조선업의 위기가 강타한 통영시는 2018년 정부로부터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를 회복하려는 통영시의 자구책도 병행 되었다. 2017년에 선정된 국토교통부의 경제기반형 보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통영시가 신아sb폐조선소 본관동을 매입해 '통영리스타트플랫폼'으로 리모델링 한 것이다. 2019년 12월 10일 준공 개소한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은 조선업의 쇠퇴로 산업·고용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목표 아래 취·창업 지원 및 교육·문화예술 향유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지상 6층, 연면적 5,022㎡ 규모의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은 창업LAB실, 강의실, 회의실, 공연장, 갤러리 등 취·창업 지원 및 교육, 문화예술 향유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5층의 남해안여행라운지와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 내 중장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한다. 4층의 창업LAB실과 2층의 청년

창업카페, 1층의 창업형 점포(2개소)는 조선업의 위기에 따른 지역민의 취·창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매년 운영자를 모집·선정해 저렴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3층 세미나실(5실)에서는 취·창업 관련 각종 교육 강좌를 수시로 진행하며, 1층 갤러리와 아트홀에서는 문화공연과 전시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

이처럼 다양한 공간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각종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통영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통영리스타트업플랫폼은 2023년 1월부터 매년 관리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좀 더 체계적인 운영에 나섰다. 먼저 창업LAB실·창업형 점포·창업카페 입주자 대상의 주기적인 네트워킹데이 운영과 쾌적한 공간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등 입주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관리하고 있다. 차별화된 취·창업 교육프로그램과 별개로 전국 지자체와 관내·외 유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 재생과 함께하는 공간 투어'라는 제목의 견학프로그램은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667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소자본 취·창업 지원 및 공간 활성화를 위해 비어있는 사무공간을 활용한 공유 오피스 '해피랑'을 조성,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대여를 통한 미술관 운영, 독서와 마음 다스림을 위한 '북피랑 & 감정해우소' 설치, 더 나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Feedback Zone' 운영, 공모를 통한 각종 문화행사 개최,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 자율참여 활성화 등 지역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서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 스마트스토어 쇼핑을 창업교육



📷 : 해양레저 선박수리 교육과정



📷 : 생활목공예기법 및 제작기술 교육과정



📷 : 대중음악 공연기획 전문가양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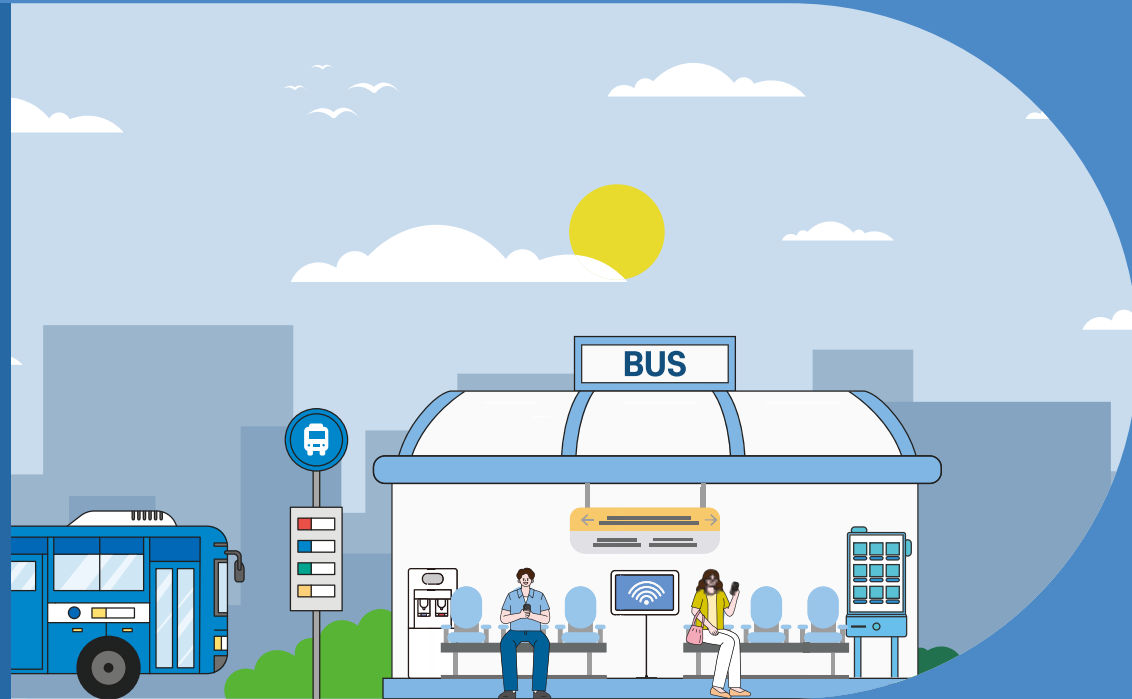


📷 : 북피랑



📷 : 감정해우소





경남 하동군

버스 대기실을 넘어 군민 모두의 쾌적한 공유쉼터로

Check

이용객 대비 규모가 열악하고 협소해 불편을 초래했던 간이 버스 승강장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근의 빈 점포를 임대, 냉난방시설과 화장실, 스마트 시설 등 쾌적하고 편리한 기능을 완비한 공유쉼터 제공



협소한 버스 승강장으로 인한 불편 야기

하동군은 고령인구 비중이 큰 지역으로, 버스는 이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히 하동 읍내는 하동군 내에서 시장이나 병원 등 생활편의 시설들이 밀집해 버스로 이곳을 오가는 고령층이 적잖다. 그렇다 보니 2019년 하동 읍내에 있던 버스터미널이 지금의 장소인 읍 외곽으로 이전하자 고령층의 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2020년 삼일약국 앞을 비롯한 읍내 3곳에 간이 버스 승강장을 개설한 배경이다. 그런데 삼일약국 앞 간이 버스 승강장의 경우 도로변에 자리해 규모가 협소한데다, 인근 하동시장으로 인해 이용객이 몰리면서 버스 대기자와 보행자가 뒤엉키며 새로운 불편이 초래되었다.

삼일약국 앞 간이 버스 승강장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대략 11개 정도로, 하동군 내 13개 읍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화개·약양·구례 등 시외버스 승객도 많이 이용한다. 적잖은 노선에 배차간격이 길다 보니, 버스 대기자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여기에 하동시장의 장날까지 겹치면 승강장 주변의 혼잡도가 한층 가중되었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은 날씨가 바빠서 오래 대기하는 게 쉽지 않고, 버스터미널 이전으로 기다리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마저 부재해 이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대기 공간에 스마트 편의시설까지 완비

하동군은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에 나섰다. 기존 승강장의 확대는 보행로를 침해하는 데다,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하동군은 승강장과 가까운 도로변의 빈 점포를 임대해 교통쉼터를 조성한 다음 무료 개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022년 12월 군비를 투입해 빈 점포를 임대하고 리모델링에 착수한 하동군은 대기시간 동안 쉴 수 있는 의자 비치는 기본이고, 냉난방시설, 공기청정시설, TV, BIS버스 정보시스템, 키오스크 발권시스템 등 스마트 기능의 시설을 완비한 '교통쉼터'를 이듬해 1월부터 무료 개방했다.

교통쉼터는 단순히 버스를 대기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 각종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났다. 삼일약국 앞 간이 버스 승강장 주변은 상가가 모여 있지만, 화장실을 비롯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하동군은 이러한 열악함을 고려해 교통쉼터를 조성하면서 화장실과 정수기, 휴대폰 충전기, 와이파이(WIFI) 등 버스 대기자뿐만 아니라 오가는 군민들에게도 유용한 시설을 두루 갖춘 쾌적한 쉼터로 조성했다.

📷 : 쉼터조성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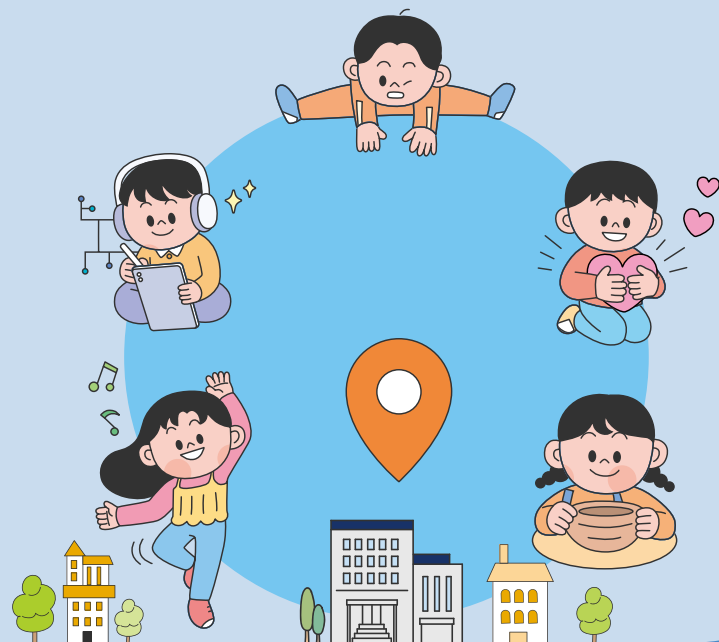
📷 : 쉼터조성 (후)



빈 점포를 활용해 생활밀착형 공유서비스 제공

승강장 인근의 빈 점포를 교통쉼터로 조성해 개방한 데 따른 긍정적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교통쉼터가 실질적으로 준 터미널 역할을 하며 버스 이용자의 호응을 얻은 결과, 버스 이용객이 하루 평균 260여 명으로 늘었다. 버스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률이 향상되면서 지역경제가 이전보다 활성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또, 도로변의 혼잡하고 비좁은 승강장 대신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비어있던 공간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공공 자원화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쉼터로 개방, 공유함으로써 단순히 버스 대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동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주요 이동 수단인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충북 옥천군

지자체의 유희공간 개방과 주민참여로 아동 돌봄 공백 해결

Check

청년인구 유입의 장벽인 보육시설 부재를 해결하고자 지자체가 보유한 유희공간을 활용한 지역 공동육아 기반 시설 마련 및 지역 주민 주도의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



양육환경 부재라는 지역 현안 대두

충북 옥천군 청성면은 군내 9개 읍면 중 면적이 가장 넓다. 반면, 인구수는 현저하게 적으며,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고령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심각한 인구 유출에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된 까닭이다. 2021년에는 지역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청성초등학교가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이후 유관기관과 지역주민, 동문 등 민·관이 힘을 합해 '청성초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다. 자녀교육을 위해 이주해오는 학부모에게 빈집을 발굴해 수리비를 지원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보육시설 부재로 인한 보육과 돌봄의 공백이 두드러지면서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민·관 협력으로 지역에 맞춤형 양육환경 마련

청성초 살리기에 이어 교육이주 학부모의 안정적 유입을 위한 지역 내 보육시설 조성도 민·관의공고한협력아래진행되었다. 옥천군이사업비확보와시설조성공사등사업시행을 맡았다면, 지역주민은 돌봄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했다. 민·관의 협력 의지에 한층 힘이 실린 건 옥천군이 '2021년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면서였다. 이후 옥천군은 지자체 소유의 유희공간인 청성면 행정복지센터 생활관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 해 2022년 12월 '청성 어린이행복센터'를 조성했다.

📷 : (공사전) 청성면행정복지센터 생활관(1층)



📷 : (준공) 청성 어린이행복센터(2층)





유휴공간에서 지역 아동 청소년 보육 및 돌봄 시설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센터 운영을 위해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한 제정했다. 이를 통해 이용 대상을 청성면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과 그 보호자로 확대했다. 가능한 많은 아동 청소년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3년 8월 본격적인 개소를 앞두고 1년여간 지역주민이 교사로 참여하는 돌봄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유휴시설에서 지역 내 보육 및 돌봄 시설로 유용한 쓸모를 갖게 된 청성 어린이행복센터는 지상 2층, 208.65㎡의 규모를 갖추었다. 1층의 어린이행복센터는 영유아와 초등학생 대상의 돌봄공간으로 급·간식 제공과 더불어 교육·놀이·문화활동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 공백을 채운다. 청소년 스터디룸인 2층은 중고등학생의 학습 및 상담공간으로, 학습 진도에 맞춘 교재 및 학습 지도를 제공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청성면으로의 전환점 마련

청성 어린이행복센터는 관 주도의 성과물이 아니라 주민과의 지속적 의견교류와 협력을 통해 기존 아동 돌봄시설의 장점을 집약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우선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청성면의 특성을 고려해 행정·복지·교육 기능이 밀집된 면 중심지에 돌봄공간을 조성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자체 소유의 유휴공간을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장소로 개방, 공유함으로써 유의미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무엇보다 교육이주를 결심한 청년 학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기존에 전무했던 보육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청성면으로의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공유자원을 활용한 옥천형 아동 돌봄체계 구축

지자체 소유의 공유자원 활용과 주민 주도의 노력,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결합해 옥천형 아동 돌봄체계를 확립한 옥천군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자체와 마을, 학교, 학부모, 주민으로 뭉친 지역공동체가 합심해 교육이주 희망 가정 상담 및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귀농·귀촌한 학부모의 집을 조성하는 사업을 통해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 유치에 나섰다.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신경 쓰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인구의 활발한 유입이 청성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을 **더**⁺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가치있게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우수사례집

IV

청년 지원



- ① 강원 동해시 청년 활동공간부터 면접 지원까지, 걱정은 달고 지원은 '열림'
- ② 서울 관악구 청년이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청년 종합활동 거점 플랫폼 운영
- ③ 충남 아산시 지역 청년 누구에게나 열린 청년 아지트로 '나와유'



강원 동해시

청년 활동공간부터 면접 지원까지, 걱정은 달고 지원은 '열림'

Check

2020년에 조성한 청년들을 위한 열린 공간 '열림'을 통해 지역 청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공유오피스, 영상스튜디오,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면접 정장,
SNS채널 등 신규자원 발굴 및 공유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작공간 '열림' 마련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은 지역을 막론하고 지자체의 공통된 고민거리다. 지자체의 주요 정책에서 청년층을 위한 지원제도가 좀처럼 빠지지 않는 이유다. 강원도 동해시도 예외는 아니다. 동해시는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활성화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관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일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청소년을 위한 창작공간 '열림'으로 조성했다. 이곳을 지역에 거주하는 15~39세 청년들이 취·창업의 바람을 실험하고 시도하는 장소로 개방해, 이들이 좀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후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잠재된 가능성을 발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원해온 공유공간 '열림'은 2023년 3월을 기점으로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 지원' 공모에서 '동해 청년 나르샤! 열림 활력 업 프로젝트'가 선정되면서 지역 청년들을 위한 한층 폭넓은 지원의 기회가 열린 것이다.



다양한 공간 조성 및 무료대관 서비스

동해시는 먼저 청년 공간 열림을 활용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 조성 및 무료대관 서비스를 운영했다.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취·창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오픈오피스·회의실·강의실 등의 공간을 조성한 다음 온·오프라인으로 무료대관할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영상 제작은 물론 편집까지 가능한 영상스튜디오와 요리법 개발과 식사가 가능한 공유주방도 무료대관이 가능하다. 단순히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공유

와이파이, 스마트폰 충전기, 프린터, 사물함 등 편의 시설까지 갖추면서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대관 건수 829건에 2,033명의 청년이 방문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심신의 건강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 프로그램도 대폭 신설되었다. 셀프베이킹을 비롯해 자신을 위한 향기 만들기, 아로마 감성오일 테라피 등 11개의 상시 프로그램을 개설해 취·창업에 지친 청년들의 문화 공백을 채우는 한편, 봉사활동과 연계해 자긍심을 고취했다.



면접 정장 대여에 VR·AI를 활용한 면접 준비까지

청년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동해 청년 그린 나래 대여 서비스'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청년들이 자신의 취향과 체형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킷, 블라우스, 치마, 바지 등 여성정장 12세트와 재킷, 셔츠, 바지 등 남성정장 9세트, 넥타이와 벨트 각 4종을 비치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 명칭에 쓰인 '그린나래'는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날개돋을 입고 면접을 잘 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대상자는 주소지가 동해시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면접 응시 예정자로, 1회당 4박 5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첫 시행한 2023년 2월부터 7월 1일까지 24명(월평균 6명)이 활용했다.

동해시는 이와 함께 청년 구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VR(가상현실)을 활용해 무한반복이 가능한 셀프 면접 연습 및 AI(인공지능) 분석 면접 평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청년들을 위해 강원도 최초 마이크로 캠퍼스 개소

2023년 9월에는 한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강원도 최초로 한림대 마이크로 동해캠퍼스를 개소했다. 이를 통해 청년 취·창업 교육과 지역 산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역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동해시는 지역 청년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청년공간 열림' 카카오톡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를 긴밀한 소통 창구로 삼아 청년들에게 필요한 혜택과 각종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정책 간담회, 청년 토크쇼 등을 개최해 청년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동해시만의 특색을 담은 청년지원 계획

앞으로도 동해시는 전방위적인 청년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와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해시만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을 비롯해 청년정책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 : 청년 공간 열림 프로그램 체험 사진





서울 관악구

청년이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청년 종합활동 거점 플랫폼 운영

Check

청년인구 비율이 높고, 그중에서도 청년 1인 가구 및 예술인 비중이 도드라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청년 생활권 가까이에 청년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종합활동 거점 플랫폼 '관악청년청' 조성 및 운영



시군구 단위 청년인구 비율 전국 1위

2023년 10월 기준 서울시 관악구의 만 19~39세 청년인구는 20만 871명으로, 전체 인구(48만 3,959명)의 41.5%에 달한다. 시군구 단위 청년인구 비율로는 전국 1위다. 관악구는 청년 예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23년 1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예술인이 많이 거주하며, 그중 청년 예술인이 무려 77%를 차지한다.

이러한 지역의 인구 특성에 비해 청년을 위한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관악구는 2019년 청년 문화활동 공간 '신림동쓰리룸'을 마련해 청년 대상으로 종합생활 상담과 주거 지원, 마음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이를 경험 삼아 2023년 4월에 오픈한 '관악청년청'은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복지, 커뮤니티, 문화예술, 활동공간 등 청년에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조성되었다.



청년의 목소리로 청년이 운영하는 청년청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건물에 청년카페, 창업보육실, 코워킹사무실, 미디어실, 연습실, 강당 등을 두루 갖춘 관악청년청은 청년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청년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청년청운영위원회'는 지역의 청년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청년청장으로 위촉되었다.

관악청년청은 이들을 주축으로 청년 수요맞춤형 지원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청년 커뮤니티 형성과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비롯해 공간·예산·연계 자원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도적인 활동을 뒷받침한다. 또한, 시설 안전 및 청결 관리와 시설 모니터링으로 청년이 안심하고 사용하는 지역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운영에 신경 쓰고 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의 삶과 욕구 반영

관악청년청은 청년을 주인공 삼은 플랫폼답게 청년 특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녹여냈다. 일례로, 관악청년청 외벽 디자인을 앞두고는 청년 대상으로 비전 문구와 외벽 랩핑 디자인을 공모해 최우수작을 실제 시공에 적용했다. 운영 프로그램에도 지역 청년의 특성과 삶을 반영했다. 1, 2차에 걸쳐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 지역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 15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그중 '체크메이트'는 청년들의 취향·생활·생각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업으로, 총 22회에 걸쳐 477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잠재된 역량을 발견하는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넥스트 트랙'은 총 24회 운영에 621명의 청년이 함께했다. 또, 차세대 소상공인 크리에이터 30명을 양성하는 성과를 낸 '로컬 비즈니스 스쿨-파운드 관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악구 로컬 브랜드 창업자를 발굴하는 데 기여했다.



지역 안팎에서 함께 즐기는 청년문화

관악문화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은 관악청년청은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대외적인 협력과 더불어 지역 청년의 활동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 간 콜로 키움'은 지역(지방)과 청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경북 안동시와 협력해 청년들이 해당 지역자원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안동의 고택을 활용한 총 10개의 여행·관광 및 체류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악 청년들의 활동을 확장했다.

청년정책 허브로서 관내 16개 청년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관악 유스크루'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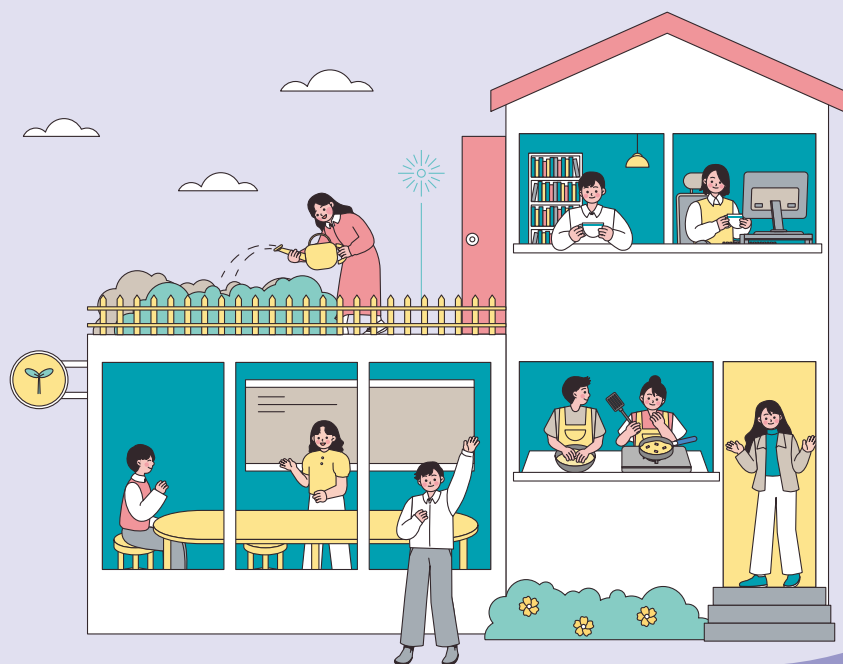
한편, 청년 주도의 지역 활동을 펼쳐온 관악청년청이 주민과 함께하는 청년문화 도시의 롤모델로 부각하며, 서울시 미래청년단을 비롯해 전국 타 시도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 유입과 지원을 위한 사업 확대

청년지원 통합 플랫폼으로서 2023년 4월 문을 연 이래 다양한 청년 수요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온 관악청년청의 활약은 성과 수치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2023년 총 12개 사업을 진행한 관악청년청의 기획프로그램 이용자는 2,297명, 공간 이용자는 3만 460여 명, 공간대관 건수는 936건으로 집계되며, 관악청년청과 관악문화재단 연계사업 참여자는 6,200여 명에 이른다.

관악청년청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과 청년 활동 지원 공모사업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유입 사업 확대에 나섰다. 지역 청년들이 능동성과 성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년 수요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고립·은둔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과 사회관계망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와 사업 발굴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관악청년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채널 강화 및 인근 대학과 연계해 대학생 유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충남 아산시

지역 청년 누구에게나 열린 청년 아지트로 '나와유'

Check

충남에서 유일하게 청년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특성에 걸맞게 청년 교류 활성화를 복돋는 청년 아지트 '나와유'를 활용해 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대여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청년인구 증가

아산시는 충남의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20대 청년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청년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충남 시·군을 통틀어 아산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청년인구가 2022년 대비 감소했다. 아산시 또한 2021년까지는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포함되었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반등한 이후 2023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년보다 1,289명의 청년인구가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여의도 면적 3.5배에 달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R&D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표면적인 배경이다. 아산시는 이 같은 지역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역이 보유한 청년 거점 공간 '나와유'를 활용해 청년지원 정책에 박차를 가했다.



청년 아지트 나와유의 기능 활성화

청년 아지트 나와유는 2018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공모사업'에 아산시가 선정되면서 조성되었다. 아산시 원도심에 소재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내 463㎡ 규모에 달하는 유허공간에 청년 전용공간인 청년아지트 나와유 1호점을 개설한 것이다. 이후 2021년 8월에 2호점인 배방점을 추가 개설한 나와유는 18-39세의 지역 청년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나와유는 '나'와 '너(You)'라는 '우리'의 의미와 함께 청년들이 세상에 나와 자신을 선보이길 바란다는 의미를 충청도식 사투리로 표현한 것으로, 명칭에 걸맞게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매개하고 지원하는 청년 아지트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청년 아지트 나와유의 기능은 지역의 청년인구 증가세와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층 활성화되었다. 지역 청년들을 위한

청년 거점 공간으로서 나와유 온양점과 배방점을 통해 청년에 특화된 취·창업 서비스 제공 및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공간 무료대여와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가동

먼저, 나와유는 스터디카페와 스터디룸, 프로그램실, 오픈키친, 베이커리공방, 홈플러스 등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장비와 더불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2023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강연, 프로그램, 회의 등을 목적으로 한 공간대여 건수는 총 2,726건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청년 스톱비즈니스,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을 위한 공유오피스(2개실)를 운영해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담금질하고 나아갈 방향을 좀 더 선명하게 수립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청년 클래스를 통해 총 332개 프로그램에 2,313명의 지역 청년이 참여했다. 청년클래스는 '스윗한 디저트', '힙한 재미', '딥한 지식', '따뜻한 위로' 등 분야별로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구성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지원했다.



추가 개소를 통한 지역 내 청년 아지트 확장

청년인구의 증가세에 발맞추어 청년들의 니즈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업 기획 및 지원을 펼쳐온 나와유는 누구보다 지역 청년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2022년 12월, 나와유 배방점 이용자 1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나와유 프로그램 및 공간 이용에 대해 93.4%가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 만큼 아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청년 대상의 수요 조사를 통해 좀 더 다양성을 갖춘 청년 클래스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나와유가 더욱 많은 지역 청년의 아지트로 활용될 수 있도록 1, 2호점에 이은 추가 개소를 통해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지속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국민을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가치있게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우수사례집

발 행 일 2024년5월

발 행 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주 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

연 락 처 (TEL) 044-205-2777 (FAX) 044-204-8934
